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등영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행정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낭첨!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제1793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12월 10일 (음력 11월 1일) 월요일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로 바다에 떠다니던 기름띠가 사고 발생 이틀만인 9일 태안군 만리포 해변을 덮쳤다. 명승지인 만리포 백사장은 하룻밤 사이 죽음의 해변으로 변했다. ▶관련기사 7면 〈대전일보=장길문기자〉

죽음의 기름띠 남하…전남해역 초비상

지난 7일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피해가 전남 해안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어민들과 관계기관이 긴장하고 있다.

전남도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은 유출된 원유의 기름띠가 조류에 따라 영광·신안 등 전남해역까지 밀려들 것에 대비해 방제선과 관련 인력을 점검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번 사고로 흘러나온 기름띠는 9일까지 충남지역에 머물러 있지만 유출된 기름 1만 5천㎘가운데 회수량이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해상에 있는 원유를 제거하기까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류를 타고 전남해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2면으로 계속〉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대선 D-9 鄭, 여론조사 2위로…양자구도 형성되나

李 "승리 굳혀졌다" 鄭 "대역전극 보라"

昌 "새 정당 창당"…완주 의사

제17대 대선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세론 굳히기'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막판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정동영 후보와 2위 그룹에 포진하고 있으나 검찰의 BBK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 동력을 상실하면서 3위권으로 처지고 있다.

정동영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은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치검찰 수사조작 국민보고대회와 방송 연설 등을 통해 공세의 칼날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검찰의 유착 의혹'에 조준하면서 막판 대추격전에 나섰다.

정 후보는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과 거짓 후보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 측은 검찰의 BBK 수사결과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자극하고 지지층의 막판 결집도를 높임으로써 막판 대역전극의 물꼬를 튼다는 입장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특히 10일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BBK사건을 다룰 특검법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법무부장관의 직무감찰권 발동 촉구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이명박 후보측과 전면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대선 막판까지 '1강 2중'의 판세를 굳혀 무난하게 대선 승리를 일군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의 BBK 무혐의 발표 이후 '전재산 사회 헌납' 선언을 통해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이명박 후보 측은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40% 중반에 안착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선 승리가 사실상 굳혀졌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범여권의 '후보단일화'도 물 건너간 분위기인 데다 복병으로 여겨졌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나라당을 고무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후보 측은 남은 대선 기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방침 아래 모든 행보에 신중을 기하고, 총기 탈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후보 경호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사소한 말실수, 행동 하나하나가 표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대한 자숙하고 몸을 낮추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이날 오후 TV 연설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미래 비전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대선 완주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가 창당을 들고 나온 것은 검찰의 BBK 수사 결과발표 이후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대한 국면 타개 카드로 읽히고 있다. 이회창 후보 측은 '창당' 카드로 전통 보수 세력의 결집을 통해 막판 대선 국면에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주 유동성 정상화

롯데에 대한화재 3,700억 매각…年內 1조 확보

대주그룹(회장 허재호)이 지난 6일 계열사인 대한화재 지분 매각에 관한 3천700억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롯데그룹과 체결함으로써 연내 유동성 1조원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10면〉

이에따라 대주그룹은 신용등급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업이윤의 적극적인 사회환원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2단계 사업이 추진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한조선 건설프로젝트도 탄력을 받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대주그룹은 지난 6일 롯데그룹(호텔롯데 컨소시엄)과 대한화재 지분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대주그룹 계열사와 허 회장이 보유중인 57%의 대한화재 지분 전량이 롯데그룹에 양도되며, 대주그룹은 내년 1월20일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확보하게 된다.

대주그룹 관계자는 "대한화재를 비롯해 건설부문 사업부지 매각, 산업은행 대출 등을 통해 9일 현재 9천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했다"면서 "추가로 진행중인 계열사 매각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에만 1조원 이상의 신규 유동성 자금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그룹은 이같은 신규 유동성 자금을 바탕으로 현재 150%에 달하는 그룹 차원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줄여나가는 한편 주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한조선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2면으로 계속〉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우림학원 창학 51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세계로 힘차게 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tc.ac.kr

社告

2008 대입 무료 설명회

서울 대성학원 이영덕 실장
16일 오후 4시 광주KT빌딩

사상 첫 수능 등급제 실시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대학입시에서 내 자녀에 맞는 최적의 입시전략을 찾아드립니다.

광주일보사는 광주 대성학원과 공동으로 이영덕 서울 대성학원 평가실장(사진)을 초청, 2008 대학입시 무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권위와 정밀성을 자랑하는 대성학원 평가실의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수험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입시전략을 소개할 이번 설명회에 학부모와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12월16일(일) 오후 4시
▲장소 : 광주시 동구 KT 빌딩 3층 대강당(동구청 옆)
▲강사 : 이영덕 서울 대성학원 평가실장
▲대상 : 학생 및 학부모, 각 고교 진학실장
▲문의 : 광주대성학원(www.kjdaesung.com) ☎062-227-0055~7

光州日報社·광주 대성학원·대성학원